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

김지수 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3.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현황
4.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체납 현황 및 사례분석
5.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

김지수 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자체수입 강화 노력이 요구됨
 -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지방세, 국세 세입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축소되면서 세입이 급격히 줄어 들어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연구 목적)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을 파악
 - 체납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자체수입 비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현황 2) 시 유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체납 비율도 높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현황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세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지자체의 핵심 재원으로서 징수관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정책적 제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으로 1) 전담 조직 및 체계적 징수 체계 마련, 2) 교육 강화 및 협력적 체계 구축, 3) 우수사례 확산 및 자치단체간 교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는 본문 참조
- 단체장의 의지와 주도는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 및 조직적 협력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징수, 체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임
- 기초자치단체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우수 시·군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1

서론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주요 지방세 및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3 회계연도(FY2023) 지방자치단체 세입 결산액은 38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원 (2.3%) 감소함(참고 <그림 1>)
 -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
 - 국세 감소(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됨
 - 지방세는 11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1천억 원(5.2%), 지방교부세는 6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2천억 원(16.3%) 감소함
 - 세외수입 및 기금 전입금 등의 재원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침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액 현황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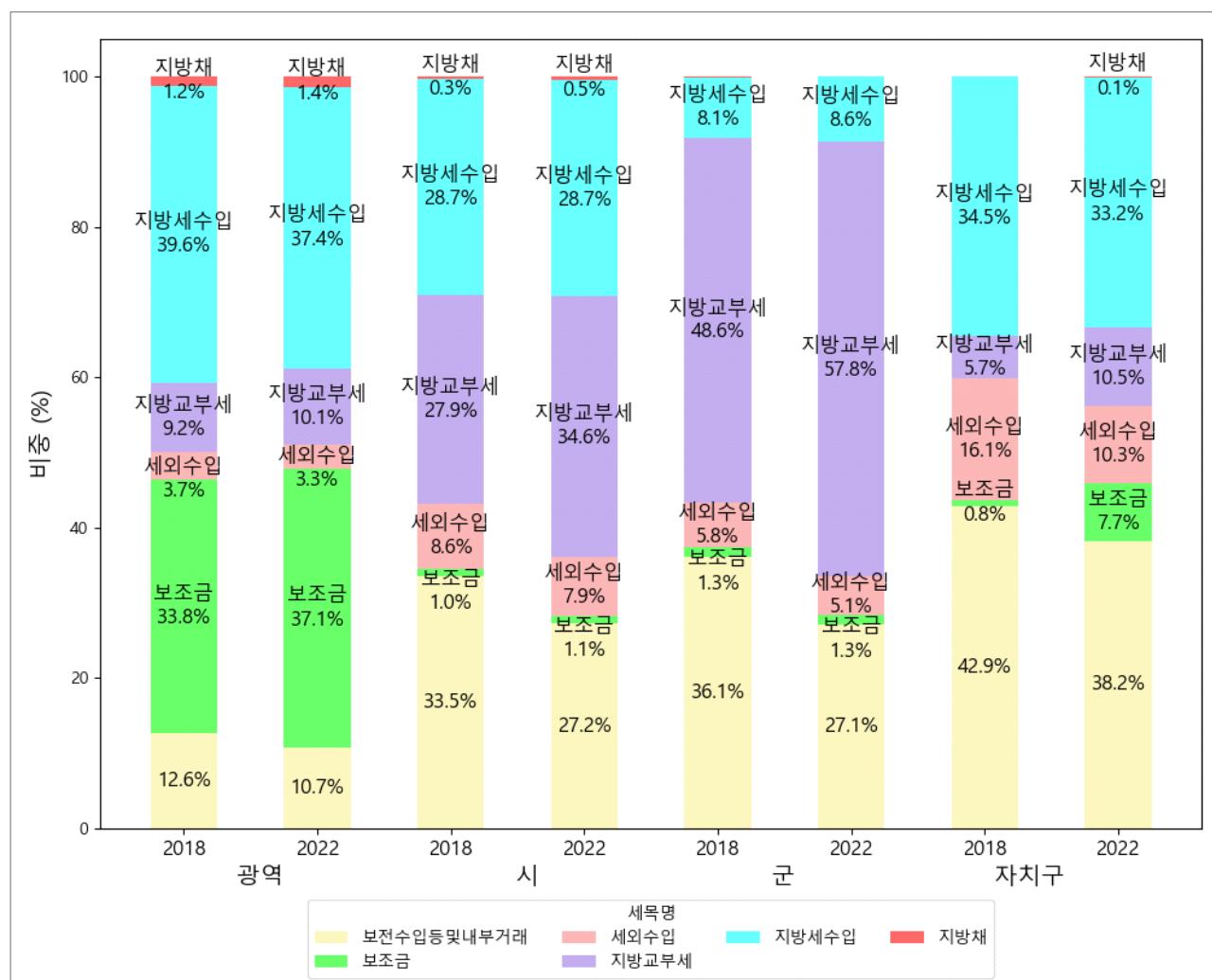
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0. 28)

○ <그림 2>의 FY2018 대비 FY202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시, 군 유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지방교부세수입 비중: 시(27.9% → 34.6%), 군(48.6% → 57.8%)
- 구 유형의 경우 세외수입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세외수입 비중은 16.1%에서 10.3%로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비중은 5.7%에서 10.5%, 보조금 비중은 0.8%에서 7.7%로 증가함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구조



주¹.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계기준

자료: 지방재정365(재원별 회계별 세입결산)

○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경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축소되면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자체수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연구 목적

○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재원이 됨

- 특히,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함

○ 이에 본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개선하여 자체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징수실적의 차이를 비교·검토함
- 체납 관리 및 징수율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02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 <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 지방세외수입)비중과 체납액 비중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줌

- 지방세 수입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광역 평균 35.43%, 시 평균 16.58%, 군 평균 5.87%, 구 평균 13.64% 수준임
- 지방세외수입 비중은 평균적으로 지방세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표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수입 및 체납액 비중 (FY2022)

(단위: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체수입 비율 ¹	광역	35.43	10.78	22.95	64.26	2.92	1.49	1.40	7.68
	시	16.58	9.64	3.87	43.36	4.28	2.06	2.27	17.23
	군	5.87	4.00	2.23	24.38	3.17	0.85	2.00	6.10
	구	13.64	6.59	5.52	37.87	5.04	2.31	2.35	12.44
체납액 비중 ²	광역	0.95	0.75	0.19	2.85	0.16	0.20	0.02	0.73
	시	1.17	0.72	0.19	2.98	1.06	0.76	0.11	4.29
	군	0.32	0.27	0.07	1.40	0.50	0.45	0.00	3.20
	구	0.29	0.25	0.04	1.28	2.09	1.41	0.61	7.86

주¹. 일반회계 기준,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비율을 계산

주². 일반회계 기준, 세입결산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계산

자료: 지방재정365(재원별 회계별 세입결산)

○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수입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광역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비중은 최소 22.95%에서 최대 64.26%로 편차가 큼

○ 군 유형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5.87%, 세외수입: 3.17%)은 다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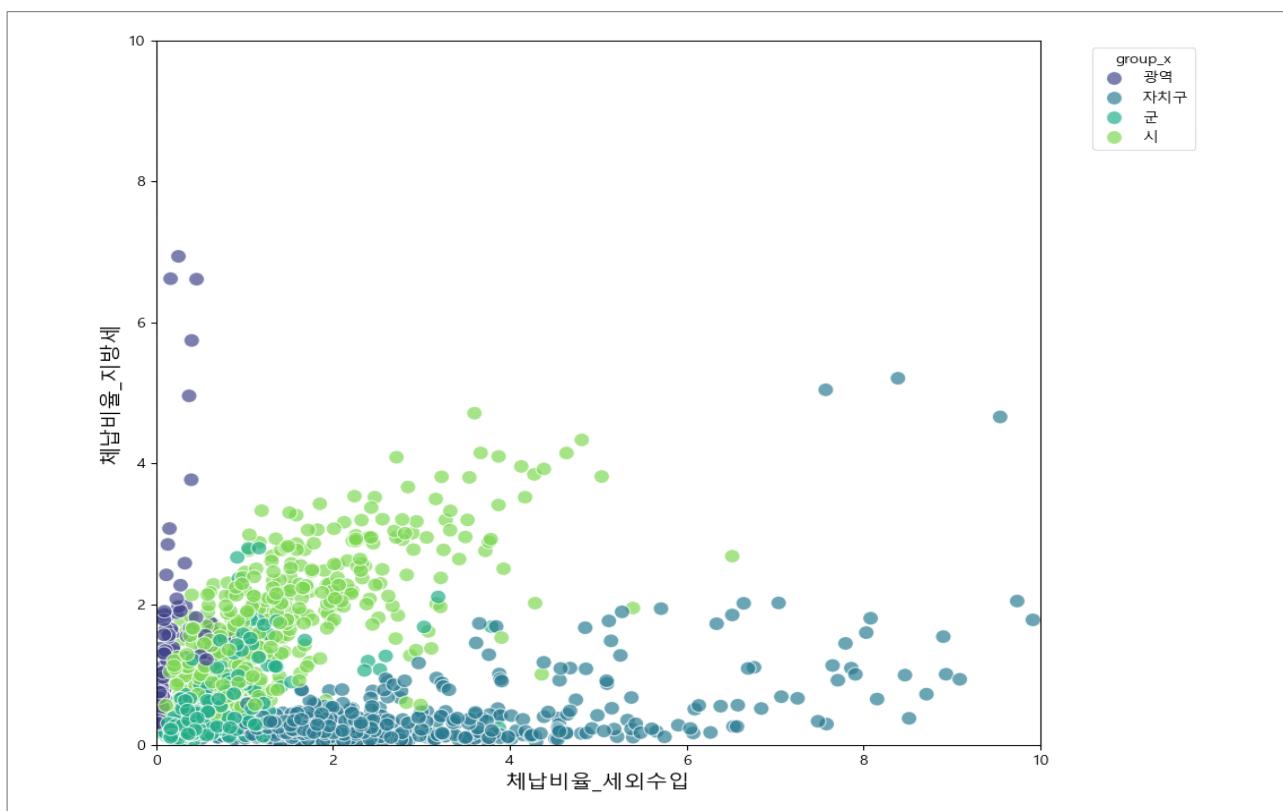
○ 지방세 체납액 비중의 최댓값은 시 2.98%, 군 1.40%, 자치구 1.28%인 반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은 시 4.29%, 군 3.20%, 자치구 7.86%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은 평균 2.09%에 달하며, 최대 7.86%로 나타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림 3>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임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수준 비교

(단위: %)



주¹. 일반회계 기준(FY2018~FY2022)

주². 세입결산규모 대비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누계액 비율을 계산

자료: 지방재정365(재원별 회계별 세입결산,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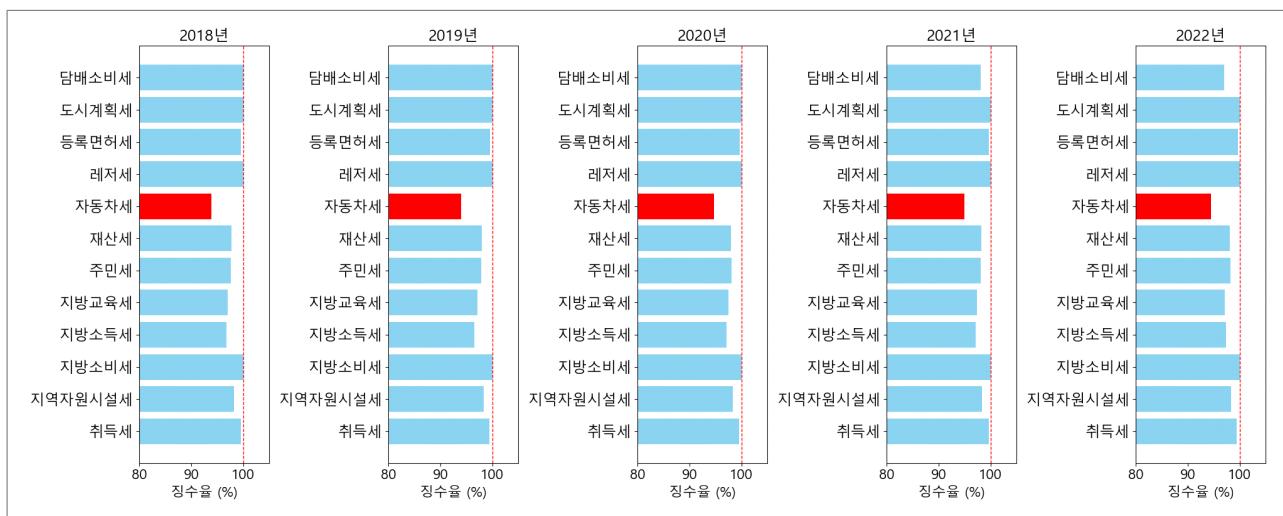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외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이 세입 결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산점도의 점들이 주로 좌측하단에 집중됨
- 시 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비율 간에 비교적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수준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 군 자치단체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산점도의 점들이 좌측 하단에 밀집되어 있음
 - 이는 세입 결산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타 유형 대비 낮은 데에서 기인함
-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체납비율 또한 높은 편임

03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현황

<그림 4>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단위: %)



주. 일반회계 기준, 각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비율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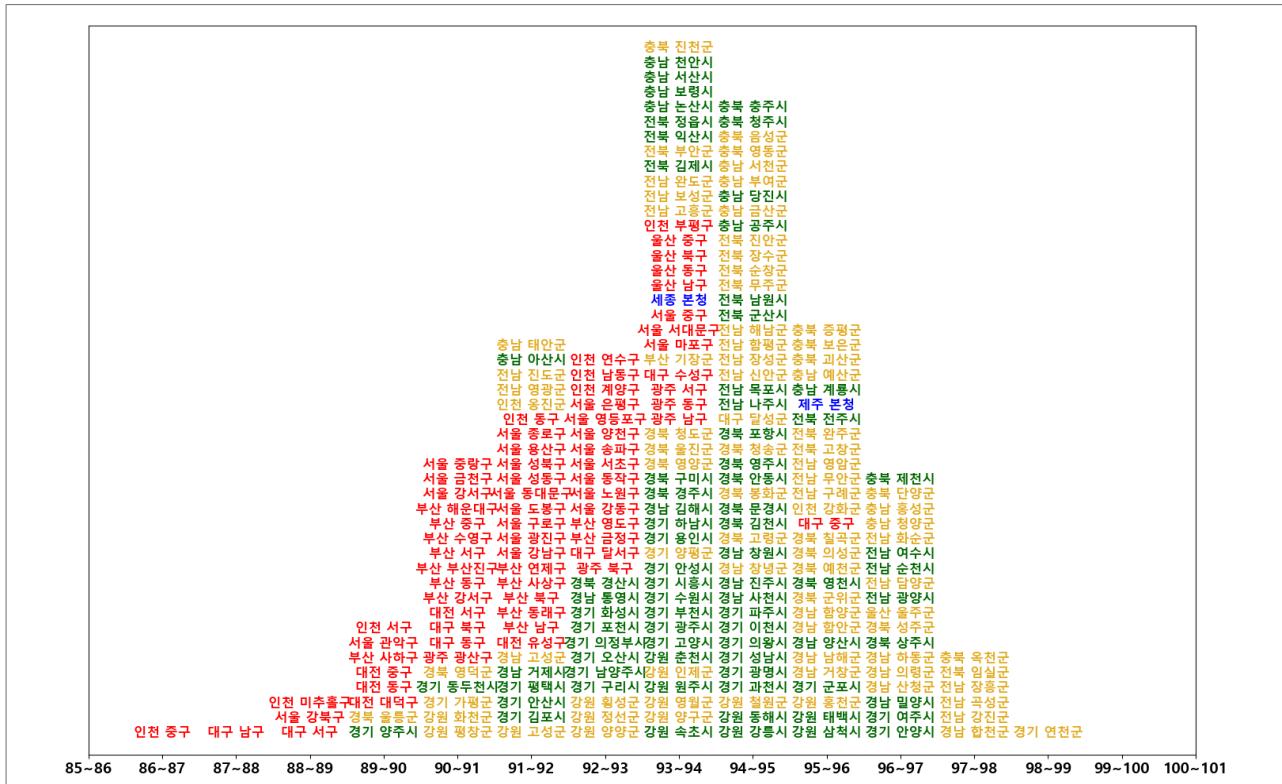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그림 4>는 세목별 징수율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로, 분석기간(FY2018~FY2022)동안,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징수율이 96% 이상으로 유지됨

- 자동차세는 2018년 93.9%에서 2022년 94.4%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수준임
- 담배소비세는 2020년까지 100%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2021년 98.1%, 2022년 97.0%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임
-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세목 특성상 매년 징수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임
- 그 외 세목은 매년 유사한 징수율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동은 보이지 않음

○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징수 실적을 살펴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자치구의 징수율이 시·군 유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 징수율(FY2022 기준)



주¹. 자동차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비율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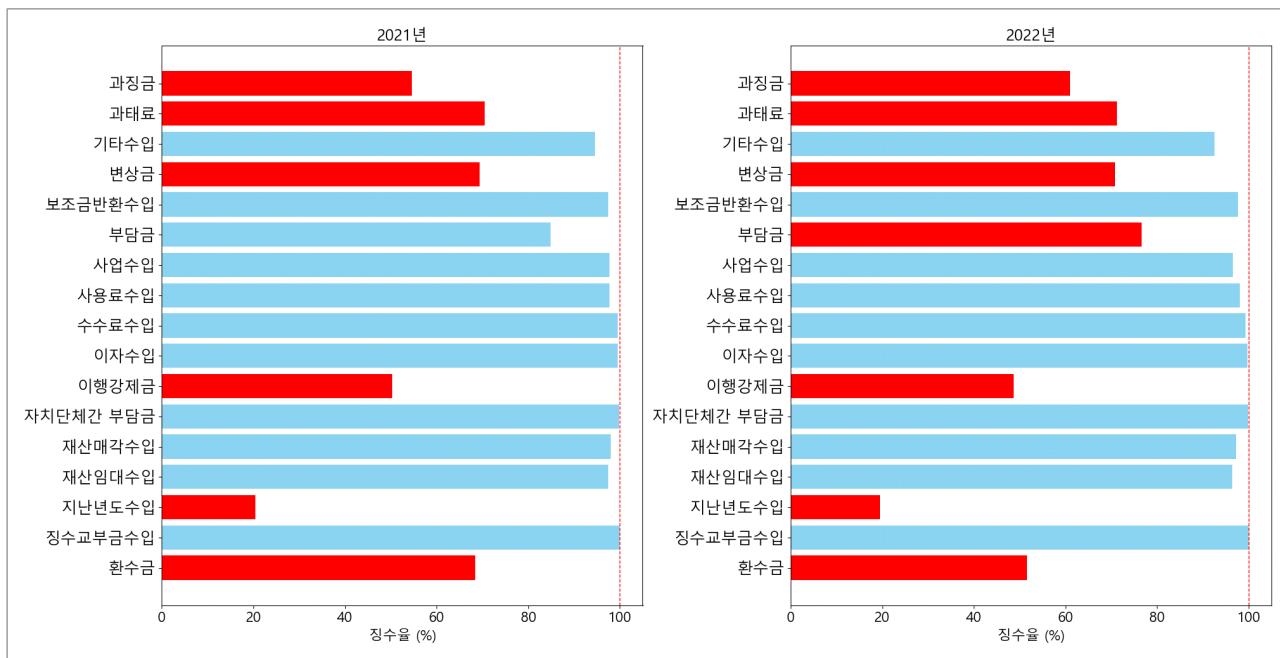
주². 광역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징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제외했으나, 세종시와 제주도는 단층제로 직접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이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므로 포함

자료: 지방세통계연감(FY2022)

○ 지방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과년도)을 제외한 세목 중 징수율이 낮은 항목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참고 <그림 6>)

-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 역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방세외수입의 고질적인 체납 요인으로 분석됨

<그림 6> 지방세외수입 항목별 징수현황



주¹. 각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비율을 계산

주². 지방세외수입 과목 체계가 2체계에서 3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비교를 위해 최근 2개년도만을 표시

자료: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각 연도

○ 지방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됨

-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법령체계 및 부과 징수 체계가 잘 정비되어있는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체계가 미흡해 징수율이 낮고 체납 처리가 어려움(김대영·강민구·김민정, 2014)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체납이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행정력 소요, 납세 의식 부족, 제재 수단의 부족, 복잡한 체납처분 절차, 결손처분의 미흡,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임 (주운현, 2016)

04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체납 현황 및 사례분석

-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현년도 징수율과 과년도(체납) 징수율 수준을 비교하고, 시·군·구 유형별 징수 우수사례를 정리함¹⁾

- 일반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징수율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함

■ 시 유형 우수사례

- 충남 계룡시는 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8.2%에서 2021년 49.6%, 2022년 62.6% 징수율이 크게 개선됨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사 및 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팀장급 직원들의 징수책임제,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징수율 개선 요인으로 밝힘²⁾

- 충남 공주시는 '미등기 은닉부동산을 발굴·공매처분' 기법을 통해 무재산 조세 회피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³⁾

- 기존에 공매 실익이 없어 처분이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 및 납세담보 설정을 통해 배당 선순위를 확보한 후 공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1억 1,100만 원을 징수함

- 경기 수원시는 체납자가 설정한 균저당권을 압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의 경매를 실행함⁴⁾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균저당권을 압류한 뒤 대위 임의 경매를 통해 2억 8,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 전남 순천시는 결손 및 고액 체납자 144명을 분석하여, 국세 압류 재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공매를 통해 지방세 우선 징수가 가능하도록하여 체납세 4억 6천만 원을 징수함⁵⁾

1) 우수사례는 지방재정대회와 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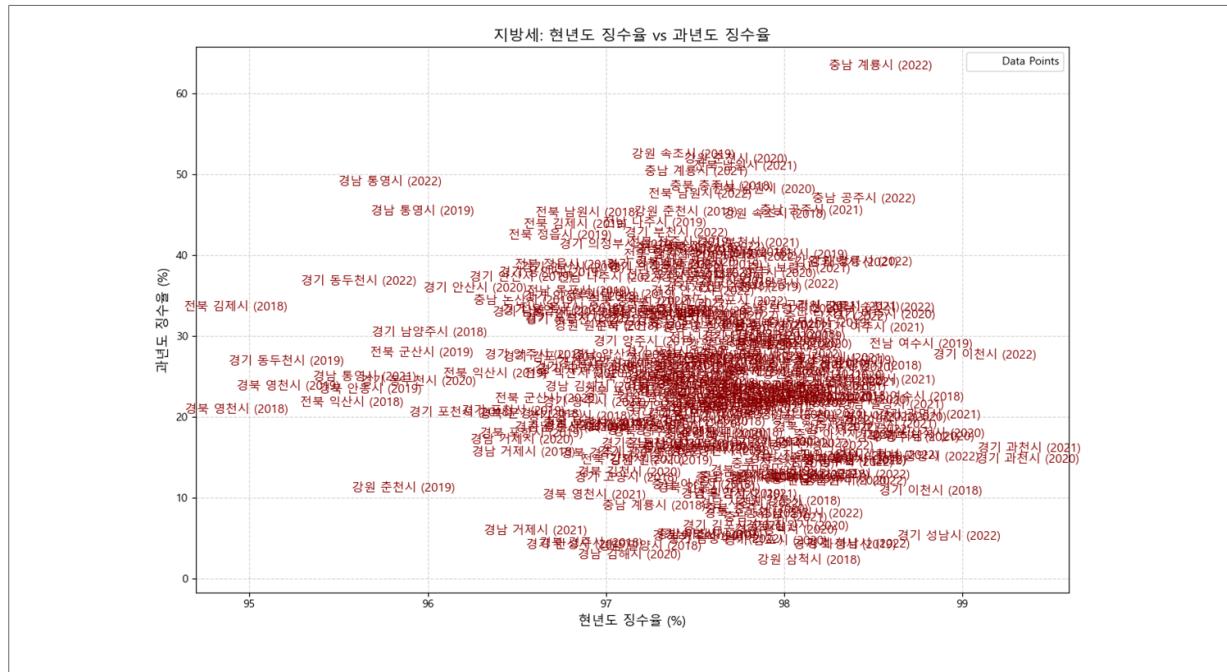
2) 2022년 충청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보도자료

3)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4)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5)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그림 7〉 지방자치단체(시)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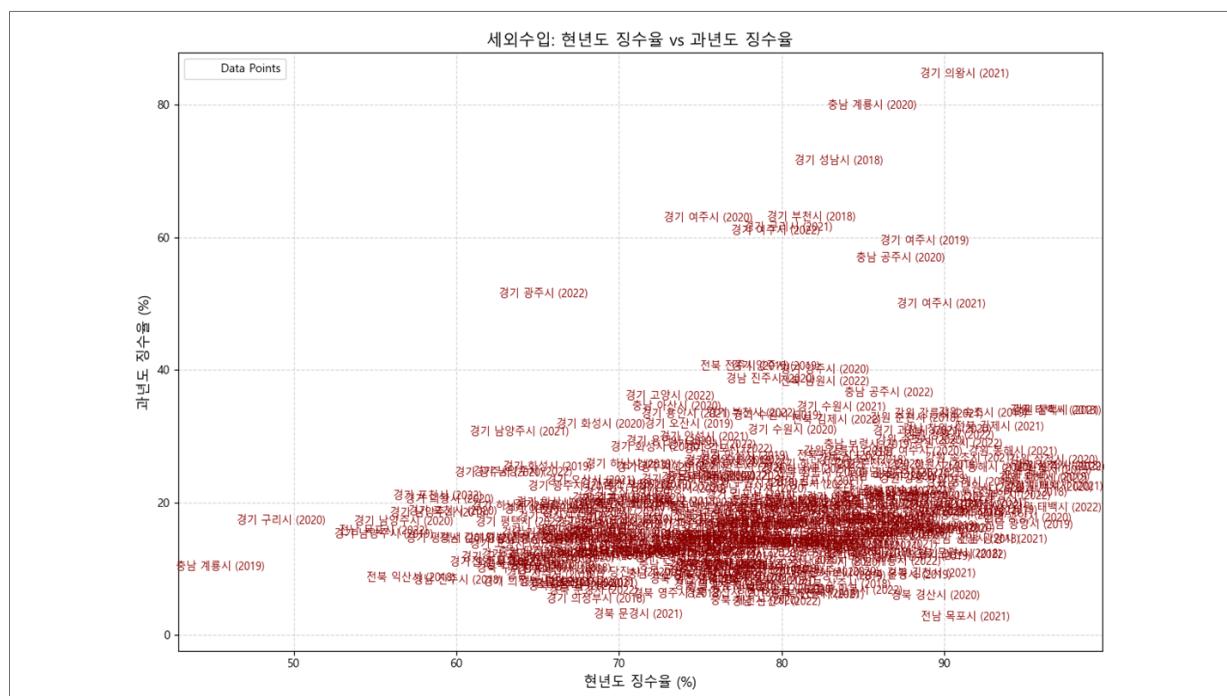


^{주1}.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통계연감(일반회계)

〈그림 8〉 지방자치단체(시)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주).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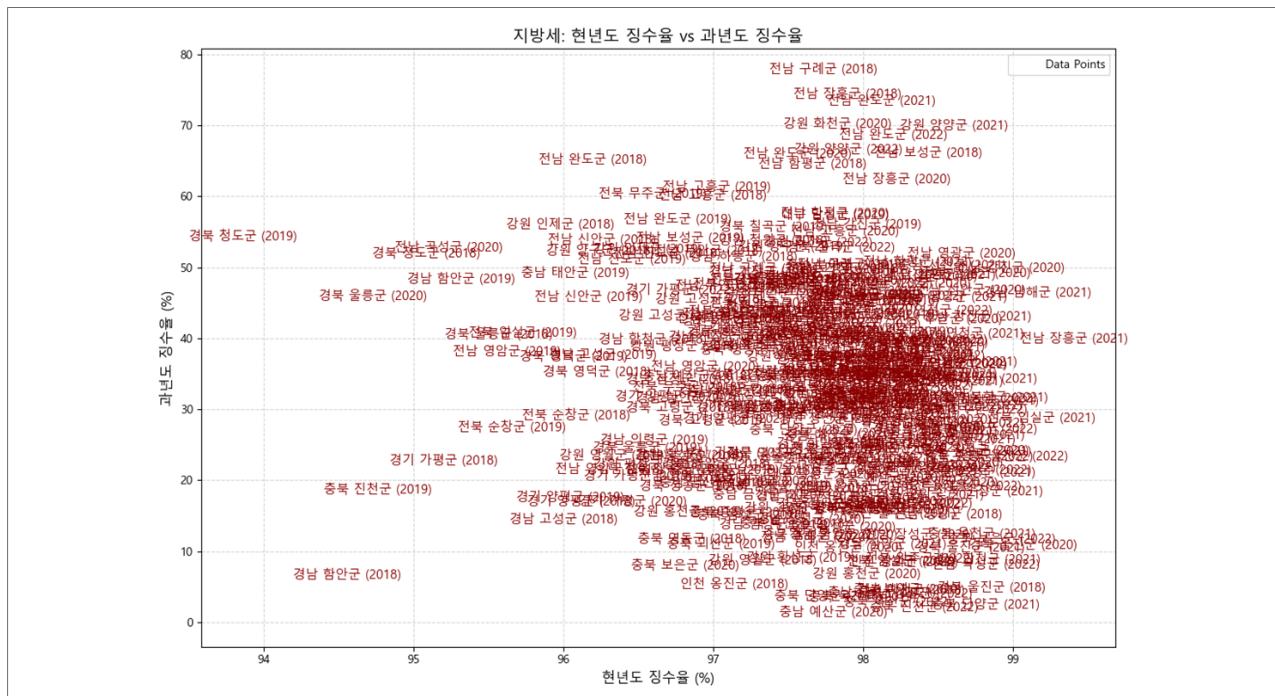
○ 경기 성남시는 1)체납실태조사반 운영, 2)지방세·세외수입 징수 프로세스 통일 및 원스톱 서비스 시행, 3)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율을 제고함⁶⁾

- 지방세와 87개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63%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둠
-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해도 암호화된 이동통신사 자료와 체납자 정보를 1:1 매핑하여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을 도입함

6)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 군 유형 우수사례

〈그림 9〉 지방자치단체(군)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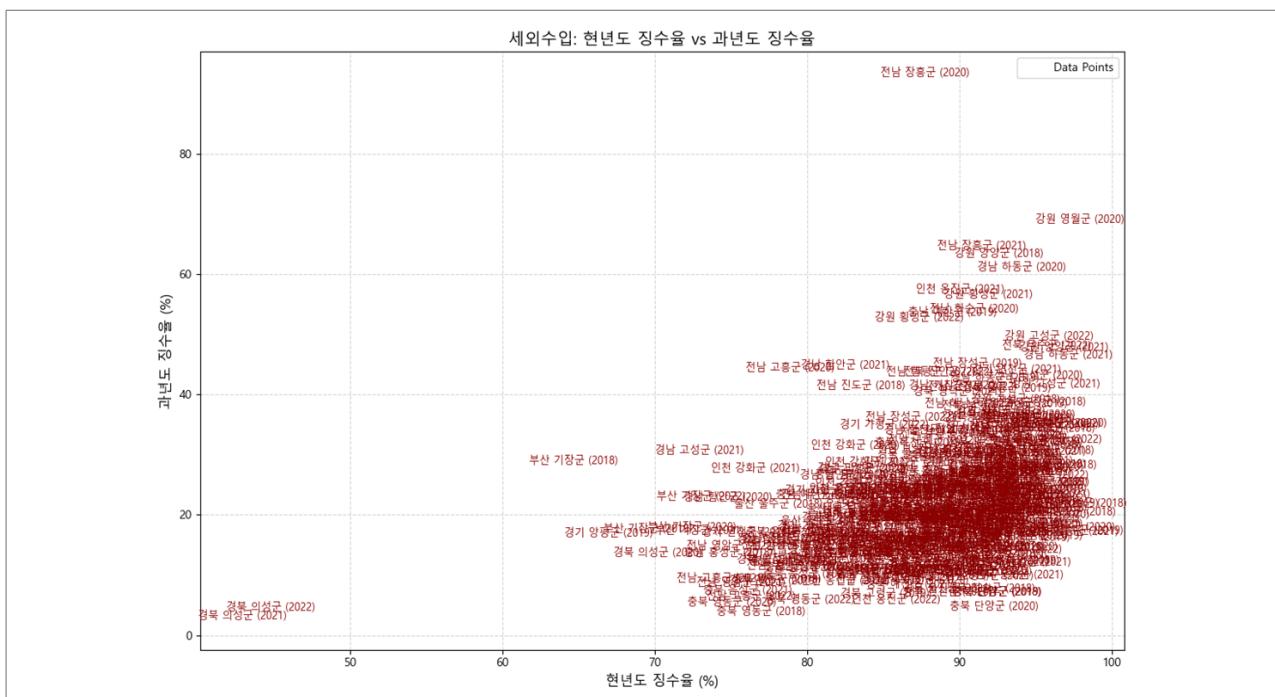


주¹.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통계연감(일반회계)

〈그림 10〉 지방자치단체(군)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주1}.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군 유형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군·읍·면 합동 징수반 구성, 징수 대책회의, 연찬회,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남 장흥군은 징수 담당 전 직원이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추적을 통한 압류 및 추심, 공매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높은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힘⁷⁾
- 전남 구례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1천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군 홈페이지 명단공개, 생계형 체납자 납세상담 및 분할 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함
- 전남 완도군은 정기적으로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역량 강화 교육실시 및 선진 징수 기법을 공유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2024년에는 성실 납세자 160명을 선정하여 군수 감사 서한문과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함

○ 울산 울주군은 체납자의 신탁채권을 압류하는 방안을 통해 납세의무 소멸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를 실현하였으며, 신탁재산 조회 및 처분 방법 등 새로운 징수기법들을 제시함

-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처분은 불가능하지만,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수익금, 배당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함⁸⁾
-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교통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통카드 대금을 압류 및 추심⁹⁾

○ 강원 횡성군은 공공예금이자수익(5억 9천만 원)과 횡성군 작은 영화관 및 횡성 한우체험관 운영으로 인한 기타수입(1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며 성과를 거둠¹⁰⁾

- 또한,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체납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함

7)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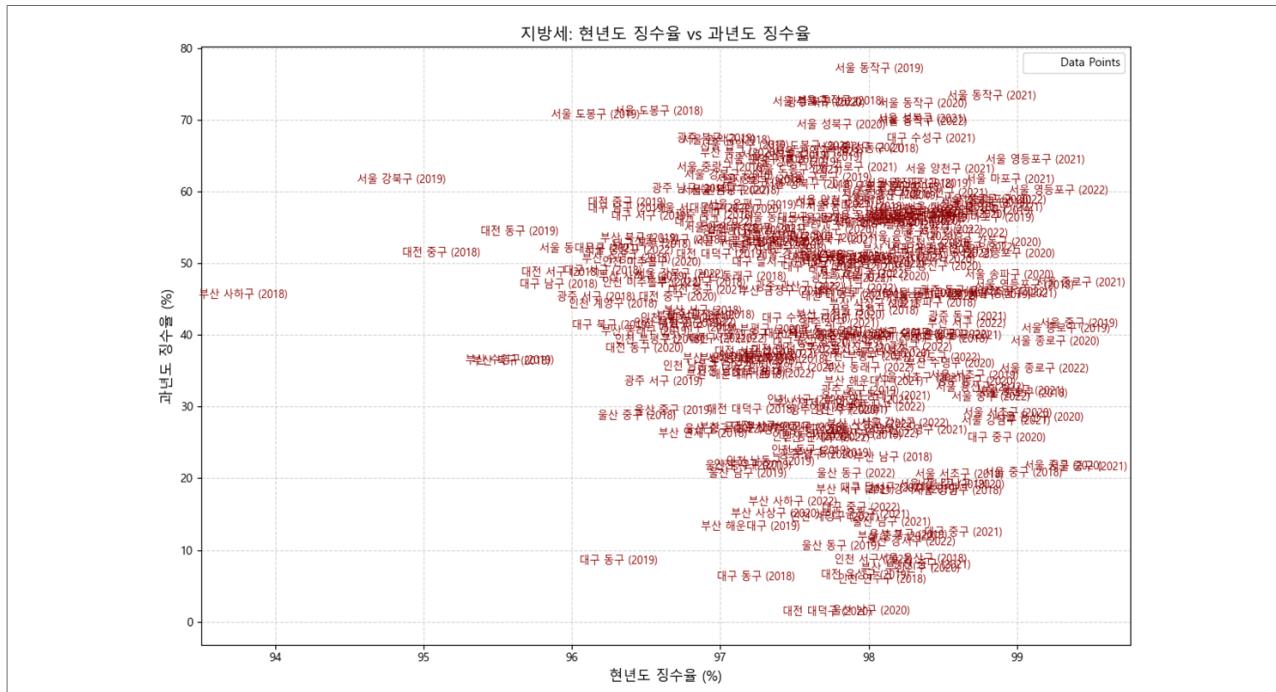
8)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9)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10) 강원도 주관 '2019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수상 보도자료

■ 자치구 우수사례

〈그림 11〉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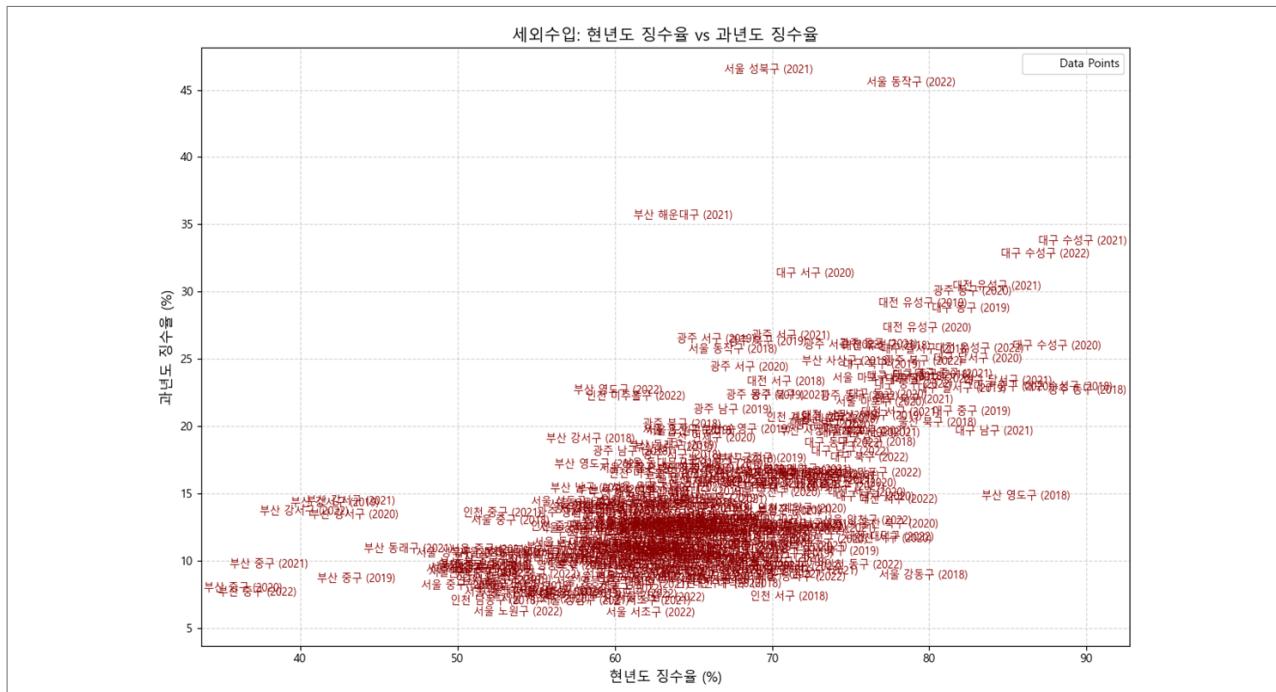


주¹.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통계연감(일반회계 기준)

〈그림 12〉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비교



^주 1. 지방자치단체별 현년도, 과년도(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계산하여 산점도로 표시

주². 과년도 징수율은 0%에서 100% 범위 내의 값만 표시

자료: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그림 12>의 우상단에 위치한 자치구들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우수한 지자체로,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 관리하는 팀을 운영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등은 '세외수입 체납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¹¹⁾
- 서울 동작구는 징수·부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 LMS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담당제 시행으로 세밀한 관리, 주말을 제외하고 운영되는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등을 우수한 성과의 요인이라고 밝힘¹²⁾

○ 서울 영등포구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 자체 개발을 통해 지방세 22억 추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7년간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 분석했으며,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22억 3,700만 원 발굴·추징함

○ 서울 서초구는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한 모바일 실시간 전자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¹³⁾

- 스마트폰 통합 영치 앱에 전자예고 기능, GPS 기반 위치 정보, 그리고 NICE 신용평가회사의 연락처 조회 및 문자 발송 기능을 결합해 구현함

○ 대구 서구는 방치된 사망자 소유 장기 압류 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함

- 그 외에도 조세와 달리 우선 징수권이 없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에서, 압류된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매를 실행, 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 거둠

○ 이 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 가상화폐 압류, 폐차대금 압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징수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 대전 중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 징수함¹⁴⁾
- 대구 달서구는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함¹⁵⁾
- 인천 계양구는 자동차세 체납 및 분납 미이행자에 대하여 예금 압류를 실시함

11) (2024년 12월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상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 유무 확인

12) 2018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

13)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14)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5)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 분납 미이행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예고하고(351백만원 징수) 체감가능한 강력한 압류가 필요함에 따라 예금압류(915백만원 징수)를 실시함¹⁶⁾
- 또한, 인천 계양구는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 금융기관의 조합원 출자금 자료를 요청하여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함¹⁷⁾
- 부산 해운대구는 경매 낙찰 후 징수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미배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 밖의 재산권' 압류를 통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 거둠¹⁸⁾

■ 기타 우수사례

○ 제주도는 장기 체납 골프장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함

- 골프장 지하수 시설물 압류 및 단수 조치, 부지 전수조사와 공매 추진, 매출채권·공탁금·증권 압류 등으로 체납액 262억원을 징수('21 82억원, '22 180억원)

○ 경기도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징수로 47,203명 대상 61억원을 징수함

-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현황 조회 및 압류·추심 실시함

○ 이 외에도,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미회수 수표 발행 내역 추적을 바탕으로 한 가택 수사,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있음

○ 세종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시청과 경찰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함

- 시청은 주정차 위반 등 행정 과태료를, 경찰서는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를 담당하며 유사 업무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정례화된 영치 활동과 음주단속을 병행하여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함

16)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17)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8)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05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자체수입 비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 유형의 자체수입비율은 다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음
- 지방세 비중 최대·최소 비교: 광역(22.95%~64.26%), 시 유형(3.87%~43.36%), 군유형 (2.23%~24.38), 자치구 유형(5.52%~37.87%)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비율의 산점도 분석 결과, 시 유형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됨

-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체납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고 체납 처리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달리 체계적인 법령과 징수 체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됨
-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경우 시민들의 납세 의식 부족, 과도한 행정력 소요, 강제 수단의 부족 등 구조적 요인들이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세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지자체의 핵심 재원으로서 징수관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전담 조직 및 체계적 징수 체계 마련) 자치단체 내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세외수입 체납팀과 같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은 체납 징수율 향상과 관리 체계 일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등은 ‘세외수입 체납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을 높인 사례가 있음
- (교육 강화 및 협력적 체계 구축)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및 징수 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적·협력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전담 조직의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현성민, 2013; 김순화, 2024)
- (우수사례 확산 및 교류 강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강화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법적 체계와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지역 맞춤형, 새로운 징수 방안을 도입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강화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군 유형에서는 군·읍·면 합동 징수반 구성, 정기 징수대책회의,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 등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한 사례가 있음
- 단체장의 의지와 주도는 징수율 제고와 체납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전담 조직 신설, 단체장 주관 징수대책회의, 새로운 징수·체납 방안 모색 등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적 협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됨

○ 기초자치단체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의 우수 시·군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는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 증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

〈참고문헌〉

- 김대영·강민구·김민정.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6), 1-175. (2014).
- 김순화.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13(3), 179-220. (2024).
- 주운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포럼, 2016, 1-85. (2016).
-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2022년~2023년.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2018년~2022년.
- 현성민. “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화 방안”, 재정정책논집, 15(2), 91-122. (2013).
- 지방재정365 (“<https://www.lofin365.go.kr/>”)